

LGD, 우리LED 유상증자 참여

LED 백라이트 강화 위해 ... 지분 29.8% 119억원에 인수

LG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Back light) 사업 강화를 위해 유수의 LED 부품 생산기업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4월16일 백라이트용 LED 패키징 공급기업인 우리LED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우리LED의 주식 680만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후 총 주식 수의 약 2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 매입금액은 약 119억원이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핵심부품 공급기업과 더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됐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LED 부품 공급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LG디스플레이는 LED 백라이트 시장 성장에 대비해 LG이노텍 및 국내 LED 부품 생산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2009년 1월에는 LED 칩 및 패키징 관련 주요 원천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크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전략적 거래선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바코, TLI, 뉴옵틱스 등 LCD 장비 및 부품 생산기업에도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6>